



"기획은 공정하게! 희망은 다같이!"

다 함께 잡사는 행복한 농어촌

제공일 : 2012. 2. 29.
제공자 : 농림수산식품부 원예경영과
과 장 : 이 영 식
사무관 : 이 덕 민
전 화 : 500-2033
쪽 수 : 3P
별첨자료 : 없음

보도자료

이 자료는 2012년 3월 1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화훼산업 기반 확충, 농가 경쟁력 제고

- 음성에 「화훼유통센터」, 강릉·인제에 「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」 조성 -

< 주요 내용 >

◇ '11.5월 수립한 화훼산업발전대책의 일환으로 거점산지 화훼유통센터 건립 및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 조성 추진

○ 거점산지 화훼유통센터(충청북도 음성군)

- (목적) 유통개선 및 화훼농가 소득 제고를 위해 화훼류의 수집, 보관에서 포장, 배송, 경매 기능까지 갖춘 화훼전용 유통센터 조성
- (지원규모) '12~'13년간 6,292백만원
- (지원내용) 건축 18,847m², 집하장, 상·하차장, 전자경매시스템실 등

○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(강원도 강릉·인제)

- (목적) 백합종구의 자급화, 안정적인 수출 확대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백합 주산지에 종구 생산단지 기반 구축
- (지원규모) '12년 5,080백만원
- (지원내용) 원원종·원종 묘생산시설, 종구 전문생산시설, 구근 종합처리시설 등

□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5월 수립한 화훼산업발전대책의 일환으로 거점산지 화훼유통센터와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
□ 충북 음성군에 건립하게 될 「화훼유통센터」는 화훼류의 수집, 보관에서 포장, 배송, 경매 기능까지 갖춘 화훼전용 유통센터로 지리적으로도 중부지역에 위치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용이하다.

○ 따라서, 소비자들은 유통비용이 줄어 보다 낮은 가격에 원하는 꽃을 구입할 수 있고, 화훼농가는 물류비용 감소로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이를 위해 총 63억원이 지원되며,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여부와 그 효과 등을 감안하여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게 농식품부의 복안이다.

○ 지금까지는 법정 화훼공판장 6곳이 서울, 경기, 부산 등 대도시에만 편중되어 있어 중부권에 구심체 역할을 할 만한 화훼유통센터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.

□ 또한, 강원도에 조성될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는 고가로 수입되는 백합종구를 자체 증식하여 보급함으로써 백합재배농가의 실질소득과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그동안 백합 절화를 생산하기 위한 종구는 대부분 네덜란드로부터 수입·판매되었으나,

- 동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종구 1개당 200~300원 낮은 가격 (현재 600원 수준)으로 농가에 보급될 수 있어 생산비 절감에 따른 소득 증대는 물론 수출경쟁력 강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.
- 또한, 국산 우수품종의 개발과 보급이 확산되도록 지원역량을 집중함에 따라 외국산 품종에 지불하던 과도한 로열티 부담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이 사업을 위해 올해 총 51억원이 투입되며, 지난해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한다.
-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자 선정을 위해 올해 초부터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은 후 서류 검토, 현지 실사, 공개발표를 진행하였으며,
-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'사업추진 심의회'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.
- 아울러, 해당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화훼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, 수출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.